

“의리녀들의 통쾌한 인생 찾기 보여드려요”



KBS2 아침드라마 '차탈래 부인의 사랑'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안선영, 하희라, 고은미(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KBS 아침일일극 '차탈래부인...' 내달 3일 첫 방 마흔다섯 줌마들의 우정 “주부님들 좋아 할 듯” 하희라 “남편 권유에 출연...비슷하게 복귀 ‘운명’”

차진옥, 오달숙, 남미래, 박부인. 이 용감한 여고생들은 자신들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딴 '차탈래부인'을 결성했다. 훌쩍 자라 마흔다섯이 된 소녀들은 영화로도 제작된 소설 '채탈리 부인의 사랑'만큼은 아닐지라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실직부터 잘 자라는 것 같은 아이들의 일탈, 그리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사랑까지.

오는 9월 3일 처음 방송할 KBS 2TV 아침일일극 '차탈래부인의 사랑'은 우리 집 이야기 같기도, 이웃의 이야기 같기도 한 남편, 자식, 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다.

이 드라마는 중년의 위기를 맞은 여자들이 행복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을 풀어내면서 때로는 유쾌, 상쾌, 통쾌함을, 때로는 코끝 찡한 진솔한 감동을 안겨줄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 하희라가 연기하는 차진옥이다. 진옥은 한때는 걸크러시를 뽐내던 스킨밴드의 리더였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교육과 남편의 승진이 전부인 인물이다. 조신한 외모 뒤에 숨겨진 '성격'이 특징이다. 그의 남편 김복남 역은 김응수가 맡아 하희라와 호흡을 맞춘다.

하희라는 28일 제작발표회에서 “차진옥이 나와 비슷한 느낌이 있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 촬영을 하다 보니 본성이 나오고, 재밌다”며 “배우들끼리 호흡도 좋다. 안선영, 고은미와 자매 이상의 우정을 나누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주부님들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하희라의 이번 드라마 복귀는 남편 최수종과 비슷한 시기에 이뤄져 더 눈길을 끈다. 연예계 대표 '인조부부'로 유명한 하희라와 최수종은 이번엔 각각 '차탈래부인의 사랑'과 KBS 2TV 새 주말극 '하나뿐인 내편'으로 컴백한다.

하희라는 “남편이 (이 작품이) 재밌어 보인다면 하면 좋겠다고 했다”며 “같은 방송국에서 비슷한 시기 드라마를 하게 된 건 처음인데 주변 분들도 ‘운명’이라고 한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오지랖 넓고 훈수가 넘치는 오달숙 역은 배우 안선영이, 화려한 외모와 옷차림을 자랑하는 뮤지컬 배우 남미래 역은 고은미가 연기한다.

'차탈래부인의 사랑'은 KBS 2TV가 2011년 11월 4일 종영한 '두근두근 달콤' 이후 7년 만에 다시 제작하는 아침일일극이기도 하다. 이전까지는 'TV소설' 시리즈를 방송해왔다.

총 100부작으로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평일 오전 9시 방송. /연합뉴스

배두나 5년만에 예능 출격... 해외진출 스토리 공개

'라디오스타' 오늘 방영

배우 배두나(사진)가 MBC TV 예능 '라디오스타'에 출연한다.

MBC TV는 29일 밤 11시 10분 방송할 '라디오스타'를 배두나와 이기찬, 수주, 스테파니 리가 출연하는 특집 '물 건너간 스타'로 꾸민다고 28일 소개했다.

배두나는 칸 영화제에 세 번 초청됐으며 봉준호, 박찬욱, 위소스키 자매 감독 등 거장들과 함께 작업하며 연기력을 과시했다.

그는 한국 호러 영화의 획을 그은 '링'을 비롯해 '괴물', '코리아'에 출연했으며 '클라우드 아틀라스'로 미국에 진출했고 최근 '센스8' 시리즈까지 연달아 작업했다. 국내 연기 활동 역시 놓치지 않는다.

배두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그동안의 외국 진출 과정을 소개하고, 다음 진출 목적지



로 프랑스를 예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클라우드 아틀라스'를 함께한 위소스키 자매 감독이 당시 촬영 중 '센스8' 출연을 예약한 사연, 할리우드에서 먼저 다녀간 가수 겸 배우 비가 한국 배우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나 생긴 예로 등을 생생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배두나는 또 데뷔 초 MC 김국진과 사이에서 퍼진 소문의 진상도 밝힐 것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프로조언러' 최화정·'국민썸녀' 박나래 '연애의 맛' 2MC

MC 최화정과 개그우먼 박나래가 오는 9월 15일 처음 방송할 TV조선 새 예능 '연애의 맛' 진행자로 나선다고 TV조선이 28일 밝혔다.

'연애의 맛'은 사랑을 잊고 지내던 국내 대표 싱글 스타들이 이상형과 연애하며 사랑을 찾아가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다.

앞서 가수 김종민과 배우 이필모가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병진도 출연하기로 했으나 일정 문제로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화정과 박나래는 출연자들에게 연애 관련 팁과 조언을 해줄 예정이다. 두 사람 외에

도 심리학자 교수인 이동기, 이미지 전략가 허은아, 연애 칼럼니스트 김정훈이 전문가로 패널로 출연한다.

최화정은 "연애는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어디로 감지 몰라 더 매력적이다. 이들의 연애가 어떻게 자라날지 지켜봐 달라"며 진행을 맡은 소감을 전했다.

박나래는 "나는 1천번 대시해서 30번 연애한다. 성공률은 낮지만 어쨌든 연애 경험은 많은 고수다. 실전 팁을 전수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아시아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찬란한 밥상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숨바꼭질(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50 2018 아시안게임 <유도>
11	00 여기는 자카르타 <유도>	00 당신의 하우스헬퍼(재)		
12			00 12 MBC 뉴스 20 숨바꼭질(재)	
1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TV속의 TV	
2	0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가자! 낭만 고향(재)	00 뉴스브리핑
3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여기는 자카르타 <아티스틱 스워밍>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뽀빠씨 모모야 놀자 스페셜 50 2018 아시안게임 <아티스틱 스워밍>	00 SBS 스페셜(재)
4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탐정 토비와 테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5 MBC 뉴스 20 2018 아시안게임 <축구/배구>	00 SBS 오뉴스 20 KBC 저녁뉴스 30 2018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준결승, <대한민국:베트남>
6	00 6시 내고향	00 속보이기는TV 인사이드(재)		
7	00 KBS 뉴스 7 35 여기는 자카르타 <유도>	00 생생정보 스페셜 50 끝까지 사랑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살릴하는 남자들	00 MBC 뉴스데스크 5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친애하는 판사님께
9	00 KBS 뉴스9			
10	00 광주충국 보도특집 화순 칸데라 55 UHD 숨터	00 당신의 하우스헬퍼	00 시간	
11	00 KBS 뉴스라인 40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영상앨범 선(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4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전복새우 가지볶음>	17:15 엄마 까투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프랑스 와인기행 3부 파리에서 프랑스까지>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꼬마버스 타요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00 정글에서 살아남자-화산섬의 비밀
07:00 울강한 소방차 레이	13:00 지식채널e	19:3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 타요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50 메디컬 다큐 - 7요일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40 우리 가족 거리 출하기-부모성적표	20:40 세계테마기행 <이주 특별한 로맨스 체코 3부 마법의 프라하>
08:30 미니특공대 X	14:30 코코몽3	21:30 한국기행 <알마당에서 여름휴가 3부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08:45 랄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50 EBS 다큐프라임
09:00 엄마 까투리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2:45 극한직업
09:30 원더볼즈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3:55 EBS 초대석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0:30 한국기행(재)	16:15 울강한 소방차 레이	
	16:30 랄랄라 뿌우(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9일 (음 7월 19일 쯤)

36년생 감당하기에는 벅차겠다. 48년생 염원해 왔던 바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능률이 오른다. 60년생 단숨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72년생 진행해 나가지만 하면 궁극적으로 성사 되리라. 84년생 절실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28, 44	42년생 잠자코만 있으면 된다. 54년생 서로 들어맞지 않아서 애를 먹는 모양새가 전개 된다. 66년생 조금만 참고 있으면 결정 될 경우이리라. 78년생 본의 아니게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다. 90년생 경사가 나서 떠들썩한 마당이로다. 행운의 숫자 : 40, 95
37년생 체계적인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법이 아니라. 49년생 구대를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참신함을 추구할 수 있다. 61년생 처음에는 난감할 것이나 점차 자리를 잡는다. 73년생 양상을 살펴본 후에 판단하자. 85년생 음양이 교차하다가 일점을 이룬다. 행운의 숫자 : 48, 09	43년생 자신이 예상하여 왔던 바와는 달리 완전히 뒤집혀서 오히려 반대로 갈 수도. 55년생 때가 이르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67년생 현상은 변화는 알리는 신호탄이다. 79년생 발전의 모티브가 보인다. 91년생 기가 막힐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55, 88
38년생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 상황이 다. 50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용감하게 응대해야 하느니라. 62년생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74년생 상호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86년생 배가 된 노력이 경주해야 승산이 있다. 행운의 숫자 : 69, 94	44년생 진행한다면 전도양양하리라. 56년생 직접 나서서 적극성이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 68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지장이 없고 마음 또한 편안하리라. 80년생 소유들이에 휘둘러질 필요가 없느니라. 92년생 일의 순서보다 양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93, 75
39년생 더불어 추진한다면 형세가 나아진다. 51년생 시작하기 전에 확실한 동기 부여가 절실한 마당이다. 63년생 생 오랜 인연으로부터 비롯되는 바가 깊고도 크다. 75년생 본전만 찾아도 다행이리라. 87년생 한낱 부질없는 욕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0, 67	45년생 무의식적인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57년생 충실히 대응하면서 알찬 여건으로 만들자. 69년생 복이 들어오고 있다. 81년생 단독의 입장은 영향력이 약하니 함께 하도록 하자. 93년생 잠시 기우뚱하던 배가 반동으로 바로 서는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27, 41
40년생 과유불급이라 하였으니 지나치다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52년생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핵심을 살필 수 없을 것이다. 64년생 상호 공존하는 성공을 만들어 가자. 76년생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88년생 멀리 내다보면서 관계를 설정하라. 행운의 숫자 : 13, 73	34년생 가부를 분명히 표해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46년생 기대하지 않음이 옳다. 58년생 좀 더 여유를 갖고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70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82년생 평상시대로만 해 나간다면 결과가 무난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3, 87
41년생 준비의 기운이 경각에 닿았으니 지체하지 마라. 53년생 끝내 미련을 떨쳐 버릴 수 없으리라. 65년생 기존에 있어 왔던 것이나 다름없이 용이 하겠다. 77년생 상대의 숨은 의중은 따로 있느니라. 89년생 거처적거리기 만 하고 소용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19, 55	35년생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성국이리라. 47년생 언제나 갖추고 있어야 제 때에 활용할 수 있다. 59년생 기급적 빨리 청산하는 것이 옳다. 71년생 갈꿈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골칫거리로 남는다. 83년생 갈꿈자의 차이를 감안 하자. 행운의 숫자 : 02, 2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